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6년 12월 15일

제 24 호

· 발행인 : 임국희 · 편집장 : 황인우
· 주소 :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3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10-4278-0450, 070-7501-3842

소셜 라이브 50+TV 개국방송에 클럽 회원 대거 참여

시니어리빙·복지박람회 '센덱스2016' 소개하는 바이럴 마케팅 방송
아나운서클럽 회원과 퇴직 방송인 등 사흘간 소셜 라이브 방송 실시



50+TV 센덱스2016
11월 5일 방송

왼쪽부터 50+코리안
한주형 대표,
미 노스캐롤라이대
Janice Wassel 교수와
인터뷰 하는
황량, 황인우 MC

아날로그 퇴직 방송인들이 디지털로 무장해 스마트폰과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시니어 개척자들과 함께 소셜 라이브 방송의 새시대를 열었다.

(사)한국아나운서클럽과 (사)50+코리안이 힘을 합쳐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매일 70명, 연인원 200여 명을 동원해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시니어리빙·복지박람회 '센덱스 2016'을 소개하는 [50+TV](www.50plustv.co.kr) 개국 특집방송을 펼쳤다.

[50+TV] 소셜 라이브 방송은 홈페이지를 통해 SNS로 방송되고, 유튜브, 카카오톡에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 행사 관련기관이나 단체, 업체의 지인들, 충성도 높은 시청자들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입소문을 퍼뜨리듯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전파하는 신개념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루 4시간씩 총 12시간 재능기부에 동참한 김성길(전 KBS)·이성화(전 TBC), 이세진(전 KBS)·윤지영(전 SBS), 이현우(전 MBC)·배유선(전

KBS), 황량(전 KBS)·황인우(전 KBS) 등 8명의 남녀 MC들은 국내 최초로 SNS로 현장을 중계하는 소셜 라이브 방송을 매끄럽게 진행하며 '시니어들의 멋진 반란 [50+TV]'의 성가를 높였다.

아나운서클럽 회원을 비롯해 50+코리안에서 총 170시간의 신직업 교육을 이수한 스마트영상작가와 영상매가이버들은 소비자의 시각으로 알찬 정보를 제공하며 고령화 시대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방송 채널의 탄생을 알렸다.

총괄 기획자인 현정주 이사는 "처음 시도하는 소셜 라이브 방송이라 기술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도 무리없이 진행한 MC들은 진정한 앵커였다. 아나운서클럽 아니었으면 방송 못했을 뻔했다."라고 말했다.

2013년 8월 설립한 50+코리안은 스마트 시대의 신직업인을 양성해온 비영리사단법인이다. 2016년 8월 말 아나운서클럽과 MOU 체결 후 퇴직 방송인과 ICT 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50Km협동조합'을 만들어 첫 공동 작업으로 '센덱스 2016'을 SNS로 생중계했다.

7면 줄임에 진행자 방담

탈북 예술가 출연 물망초음악회 차인태 부회장 사회

아나운서 후배인 (사)물망초 박선영 이사장 돕기 위해 재능기부



물망초음악회 사회를 본 아나운서클럽 차인태 부회장
주최자인 물망초재단 이사장 박선영 회원

아나운서클럽 차인태(전 MBC) 부회장이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박선영 (사)물망초 이사장을 돕기 위해 재능기부를 한 탈북민 음악회가 열려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사)물망초(이사장 동국대 법학과 박선영 교수)가 주최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위한 물망초음악회가 차인태 부회장의 사

회로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평양음악무용대학 출신의 피아니스트 김철웅, 국악인 박성진, 성악가 한서희 등 탈북민들이 통일을 향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었다.

아나운서클럽에서는 김규홍(전 KBS) 부회장 가족을 비롯해 김규은(전 KBS), 강동순(전 KBS), 채영신(전 KBS) 회원 등이 참석했고, 클럽 명예회원인 춘추동방송 이사장 윤영자도 재능기부에 동참해 행사 전체를 동영상으로 담았었다.

송/년/사

불통과 전환의 시대, 바르고 고운 말, 정의로운 말은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임국희(전 MBC) 회장

12월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축복의 달, 용서의 달, 위로의 달, 사랑을 나누는 달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년 12월은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삼포 시대. 중년에게는 묻지 않고,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불통의 시대. 우리 모두 이 전환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맑고 바른 기운으로 우리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바르고 고운 말, 정의로운 말의 힘을 믿습니다.

사회 저변에서 묵묵히 우리말 지킴이로, 방송 재능기부로, 그 밖의 사회봉사로 아나운서의 소임을 다하며 주변을 밝혀주는 클럽 회원들이 있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비인간적인 기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나운서클럽의 무너지지 않는 울타리 덕분에 '선배 존경, 후배 사랑'의 따뜻한 기류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해 미수를 맞으신 최계환, 황우겸 선배님의 건승을 빌며 임택근, 전영우, 박중세, 최만린, 김동건 전임 회장님, 전용덕, 강영숙 고문님의 따뜻한 정과, 물망초의 은은한 향기, 새해에도 이런 것들을 모두 마음에 담고, 다 같이 손잡고 깊고 깊은 길을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들의 큰 잔치 2016 아나운서 대상 시상식

엄중한 시국 예민한 장소임에도 품격과 화합 빛났다

12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 아나운서대회는 엄중한 시국, 예민한 장소임에도 품격과 화합이 빛나는 축제의 장이었다.

아나운서들의 한 해 활동을 돌아보는 '2016 대한민국 아나운서 대상 시상식'이 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장 KBS 윤지영) 주최로 12월 9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에서 1부 최기환(SBS), 박은영(KBS), 2부 김승휘(KBS), 김소영(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렸다.

연합회 윤지영 회장은 "바쁘고 혼란스

러운 시기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아나운서 된 지 20년, 제 고민만 하느라 쫓기듯 지내와 아쉬움이 밀려오지만 새로운 인연과 경험을 쌓은 귀중한 시간이었다. 수상자도 축하하고 선후배님들께 사랑을 보낸다."라고 인사했다.

이 날 시상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정책관, 태원엔터테인먼트 정태원 대표, tbs 정찬형 대표, 38명의 아나운서클럽 회원, 아나운서연합회 소속 8개 방송사 회원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2, 3면 특집)

25명 현역 아나운서 공동 저서 <아나운서 말하기 특강> 출간

발음 훈련법, 대화 기술, 행사 진행 등 말에 관한 비법 다룬 책

현역 아나운서들로부터 말하기를 배울 수 있는 책이 나왔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12월 9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합회 소속 8개 방송사 아나운서 20여 명이 함께 쓴 <아나운서 말하기 특강>(다우출판사)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정용실, 김재원, 유지철, 김은성, 윤인구, 이재후, 김진희, 엄지인(KBS), 강재형, 신동진, 류수민, 허일후, 김소영(MBC), 이현경, 조정식, 장예원(SBS), 박명규, 박재홍(CBS), 이자연, 강미정(OBS), 송정애, 정영주(tbs), 최



정민(febe), 김지현(cpbc) 등 25명의 아나운서가 공동 저자로 참여해 발음 훈련법, 대화의 기술, 강연과 발표, 행사 진행 등 '말'에 관한 비법을 다룬 책이다.

윤지영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연합회장을 맡고 2015년부터 말하기의 방법을 나누는 원고를 모으며 출간 준비를 해왔다. 말은 자신을 바로 세우는 도구이자 모든 관계의 핵심이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의 정체성과 필요성을 새롭게 모색해나가는 동시에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라 뜻 깊다."라고 말했다.

2017년 정기총회 3월 2일(목) 오후 6시 30분 열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16 대한민국 아나운서 대상 시상식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시상식에서 클럽 임국희 회장은 “아나운서 선후배 사랑이 일관되게 이어진다는 믿음 속에 바른 기를 뽑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다. 바르고 고운 말, 정의로운 말, 만세!”라는 축사와 함께 금일봉을 전달했다.

시상식은 말레이시아 수트라허버리조트 숙박권이 부상으로 주어지는 문화체육부장관상인 대상에 KBS <아침마당>의 윤인구 아나운서를 비롯해 라디오진행자상 교양정보 부문 cpbc 김지현·febc 최혜심, 음악프로그램 KBS 신윤주·광주CBS 안효경, TV진행자상 시사 부문 KBS 최원정·tbs <상답받고 대학가자> 팀, 교양 부문 SBS 유경미·MBC 서인, 예능 부문 KBS 이정민·SBS 김환(조정식 대리 수상), 앵커상 KBS 김윤지·KBS창원 심인보, 스포츠캐스터상 MBC 김나진, 아나운서클럽상 OBS 유진영·MBC 김대호, 장기범상 울산febc 송옥석 아나운서 등 10개 부문 17개 팀 또는 개

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맨 처음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 황우겸 고문은 “미수연을 베풀어준 아나운서 후배들 덕택에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아나운서의 긍지를 갖고 인품을 갖춘 좋은 방송인이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루어진 날, 시국이 혼란스러워 꽃다발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주최 측 KBS 아나운서들의 말처럼 시상식장은 어느 때보다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수상자들은 말의 전문가답게 하나같이 재치 있고 의미 있는 소감으로 울림을 주었다.

울산febc 송옥석 방송부장은 중국, 태국 등지에서 직접 탈북민을 취재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의 실상을 전해 제정자인 이계진 부회장으로부터 장기범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을 받고, “탈북자에게 소감을 물었을 때, 첫 마디가 ‘송옥석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였다. ‘인터넷

으로 극동방송을 듣고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송옥석 씨 방송 들어 안다.’는 것이었다. 지극히 더 작은 자를 위해 더 좋은 방송을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막간을 이용해 도경완 아나운서가 진행한 경품 추첨 시간에서는 조길자 회원이 골프 퍼터를 받는 등 참가자들에게 이금희, 손미나 회원을 비롯해 많은 후원사가 기증한 푸짐한 선물이 제공되었다. 싸이의 노래에 맞춰 빼어난 춤 솜씨와 개인기로 웃음을 준 개그맨 이수지, CBS 이강민, 이봉규, tbs 이가희, 조현희 등 신입 아나운서의 공연도 흥을 돋우었다.

2016 대한민국 아나운서 대상 시상식은 “이러려고 아나운서 되길 잘했다. 자괴감이 아니라 자긍심이 든다. 따뜻한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2부 오프닝멘트를 한 김승휘 아나운서의 축원처럼 축하와 격려가 어우러진 흐뭇한 축제의 장이었다.

2016 한국아나운서대상 화제의 수상자 인터뷰

대상 윤인구(KBS)
함께 웃고 감동의 눈물 흘리며 치유할 수 있기 바라



시상자인 김동건 고문의 포옹과 함께 아들딸, 아내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많은 지원자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아나운서, 참 귀한 직업이다. 그러나 입사 때 자부심이 자괴감으로 바뀌어 떠난다. 한순간에 20년이 지나갔다. 발동이 늦게 걸리는 부족한 제게 큰 상을 주신,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 이 상을 여럿을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라며 담담하나 벽찬 어조로 수상 소감을 전했다. 윤인구 아나운서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함께 웃고 감동의 눈물 흘리며 치유할 수 있는, 넓은 의미를 사회복지실천하고자” 아나운서를 지망해 1997년 공채 24기로 입사했다. <연예가중계> <체험 삶의 현장> <TV는 사랑을 싣고> <TV쇼 진품명품> <도전 지구탐험대> <도전 골든벨> <러브인 아시아> <아침마당> 등 KBS 대표 프로그램을 섭렵하며 범절 있는 편안한 진행으로 사랑을 받은 윤 아나운서는 현재 한국어연구부 팀장을 맡고 있다.

아나운서클럽상 유진영(OBS)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의 꿈이신 대선배들께서 주신 상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나운서를 꿈꿔왔다는 유진영 아나운서는 “길을 열어주신 부산 MBC 선배님들과 함께, 같은 길을 헤쳐 나가고 있는 OBS 아나운서팀 선후배와 동기 덕분이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의 꿈이신 대선배들께서 주신 상이라 더 영광스럽다.”라며 기뻐했다. 숙명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부산MBC를 거쳐 2007년 OBS 공채 1기로 입사, 개국 초부터 메인 뉴스인 <OBS M>, <명불허전> 등을 비롯해 현재 <OBS 뉴스&이슈>와 <꿈꾸는 U>를 진행하며, 탁월한 방송진행 능력과 겸손하고 배려 깊은 품성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 고려대 언론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 아나운서는 요리, 여행, 공연 관람이 취미로, 소중한 이웃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나누는 힐링 토크쇼를 진행해보고 싶다고 “저의 꿈을 더 다부지게 끌고 가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새기겠다. 의미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나운서클럽상 김대호(MBC)
선후배간의 연결고리 역할 하며 더 좋은 아나운서 되겠다



수상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했다는 김대호 아나운서는 “앞으로 어린 연차의 후배들과 대선배님들과 거리를 좁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담긴 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홍익대 경영학과 졸업 학기가 다가오는데 성적도 좋지 않고 자격증도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 유일하게 지원 가능한 전형 방식이었다는 TV 오디션 프로그램 <신입사원>을 통해 2011년 7월 1일 입사했다. <불만제로 업>의 제로맨으로 시작해 <댄싱 위드 더 스타 시즌3>에 출연했고 <이브닝 뉴스>, <출발 비디오 여행> 등을 진행했다. 걷기, 공상하기, 여행인 취미를 살려 현재 하고 있는 <생방송 오늘저녁>의 ‘나 혼자 간다’와 같은 여행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김 아나운서는 평소에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김나진 아나운서를 본보기 삼아 앞으로 부족한 기본기도 더욱 갈고 닦아서 좋은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라디오 - 교양 최혜심(febc) 임국희 회장과 김지현(cpbc)



라디오 - 음악 신윤주(KBS) 김동건 고문과 안효경(광주CBS)



앵커상 심인보(kbs창원) 김윤지(KBS)



장기범상 송옥석(울산febc)과 이계진 부회장



TV - 시사 <상담받고 대학가자>(tbs) 팀 최원정(KBS)



TV - 교양 김규홍 부회장과 서인(MBC) 유경미(SBS)



TV - 예능 김환(SBS) 이정민(KBS)



스포츠캐스터상 김나진(MBC)



스포츠캐스터상 김나진(MBC)

아름다운 말 말 말

대상

KBS <아침마당> 윤인구

“격랑의 2016년을 보내며 큰 산을 넘는다. 이리려고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참 기쁘다!”

앵커상

KBS <뉴스5> 김윤지

“훌륭한 선후배 많아 민망하고 송구스럽지만 매우 기쁘다. 엄정한 시국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른 아나운서가 되겠다.”

KBS창원 <뉴스9 경남소식> 심인보

“탄핵 표결로 지역 뉴스가 결방돼 흥분하게 참석했다. 지역민과 밀접한 뉴스, 그 소리로 그 자리에 있는 항상성을 깨닫는다. 기쁘고 좋은 소식 전하고 싶다.”

스포츠캐스터상

MBC 김나진

“뽀뽀이 흩어진 동료들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지만,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 매우 기쁘다. 아나운서의 전문성은 스포츠 중계에 있다. tbs 김혜지 아나운서와 3월 출산 예정인 딸에게 이 상을 바친다.”

라디오진행자상

교양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최혜심

“극동방송에서 다양한 만남을 통해 생각과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왔다. 어머니, 남편, 아들, 사랑하고 고맙다!”

가톨릭평화방송 <행복을 여는 아침> 김지현

“아직 청소년 상황인데 너무 일찍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럽다. 겸손한 마음 갖고 더 성장하겠다.”

음악

KBS <KBS음악실> 신윤주

“22년 만에 처음 받는 상! 클래식을 잘 몰랐던 내가 음악으로 위안받고 치유받고 있다. 아름다운 밤이다.”

광주CBS <가스펠산책> 안효경

“국가적, 개인적으로 역사 깊은 날이다. 무너진 기본을 다시 세우는 날, 아나운서, 언론인으로서 기본을 다시 세운다. 잘 키워주신 CBS 선배님들 고맙다.”

아나운서클럽상

OBS 유진영

“재야의 고수를 꿈꾸는 13년차 아나운서다. 앞으로 말의 무게를 인식해 마음과 생각을 담은 좋은 방송 하겠다.”

MBC 김대호

“육군훈련소에서 상을 받은 이후 처음이다. 선배님들, 충성, 충성! 개인주의자지만, 지극히 무거운 이 상을 허리 역할 잘하란 의미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이 왔으면 좋겠다.”

장기범상

울산febc 송옥석

“과분한 상이다. 장기범 선배처럼 정직, 소통,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신으로, 여러분의 기도 헛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다.”

TV진행자상

시사

KBS <역사적인 그 날> 최원정

“입사 17년차, 큰 상 처음 받는다. 각성할 일이 많았던

하루, ‘역사적인 그 날!’ 트로피를 마음의 촛불이라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에 게으르지 않는 아나운서가 되겠다.”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 팀

(1회~600회 진행 정연주 외 김보빈, 김혜지, 이가희) “공교육 살리기, 교육 정보의 유통을 책임지는 몫으로 상을 받는 것 같다. 세월호 사고가 없었다면 그 학생들도 상담받았을 거라 떠올리곤 한다. 하나의 큰 시작을 이룬 날, 조금은 무겁게, 조금은 기쁘게 이 상을 받겠다.”

교양

SBS <모닝 와이드> 유경미

“최기환 아나운서와 6년째 진행했는데 저만 상을 받았다. 더 기쁘다. 제가 더 잘했기 때문 아닐까!(웃음) 다음 주부터 아침 뉴스를 맡게 되는데, 상을 받고 마무리하게 돼 뿌듯하다. 열심히 해 앞으로 앵커상도 노력하겠다.”

MBC <파워 매거진> 서인

“교양적이지 않은데, 상을 받아 송구스럽다. 앞으로 교양 있는 아나운서가 되겠다. MBC 아나운서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 많이 안타깝다. 선후배님들, 많이 도와달라. 기본기를 잘 가르쳐주신 CBS 선배님들, 감사하다!”

예능

KBS <여유만만> 이정민

“존경하는 선배님들 앞에서 말하려니 머릿속이 하얗다. 상을 받고 보니, 생각보다 트로피가 엄청나게 무겁다.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겠다.”

SBS <백년손님> 김환

“10년 동안 자신의 색을 찾아 묵묵히 최선을 다해 노력한 대가, 상이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방송하겠다.”

제28회 한국어문상

문화체육부장관상 방송 부문 KBS 장웅

한국어문기자협회장상

말글 사랑 부문 MBC 오승훈 특별상 tbs 정연주



장웅 아나운서 오승훈 아나운서 정연주 아나운서

한국어문기자협회(회장 동아일보 어문연구팀 차장 이승훈) 주최로 12월 8일 오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8회 한국어문상 시상식에서 김정희 문화일보 교열팀장이 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신문 부문 황인석 매일경제 교열부장, 방송 부문 장웅(KBS) 아나운서가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그리고 말글 사랑 부문에 오승훈(MBC) 아나운서, 특별상 정연주(tbs) 아나운서 등이 한국어문기자협회장상을 받았다.

제25회 방우회 바른말 보도상

KBS <뉴스7> 이승기

MBC <뉴스투데이> 박재훈

SBS <주말 8시뉴스> 박현석 앵커



이승기 기자 박재훈 기자 박현석 기자

(사)한국방송인동우회(회장 한영섭)가 주최하는 제25회 바른말 보도상 시상식이 12월 9일 오전 11시 KBS에서 열려, KBS <뉴스7> 이승기, MBC <뉴스투데이> 박재훈, SBS <주말 8시뉴스> 박현석 기자 등 지상파 3사 앵커가 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한영섭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수상자 공적사항과 수상소감 발표에 이어 아나운서클럽 고문이며 방우회 부회장인 전영우(전 KBS) 심사위원장의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22회 MBC초록회 여 후배 격려상

<생방송 오늘 아침> 양승은 아나운서



전직 MBC 여자 아나운서·프로듀서 모임인 초록회(회장 임국희)는 12월 2일 정오 서울 강남의 한식당 남포에서 MBC 후배 양승은 아나운서에게 격려의 상패를 수여했다. 송년회를 겸한 이 자리에는 전 제주MBC 사장 차인태 아나운서와 전 MBC 최창섭 아나운서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2007년 입사한 양승은 아나운서는 <생방송 오늘 아침>과 <출발 비디오 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중계탑

“That's a wonderful choice!”

- 강원 3사 MBC 아나운서들의 송년 모임에서 -

글 / 박지현(원주MBC) 아나운서

영화 <I am Sam(아이엠 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커피숍에서 일하는 주인공 샘, “디카페인 더블 톨 저지방 카푸치노요!” 라고 주문하는 손님에게 “That's a wonderful choice!” (네, 정말 탁월한 선택이에요!)라고요.

마침, 12월 9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던 바로 그 날, 강원영동, 원주, 춘천 등 강원도 3사 MBC 아나운서들의 우리말 세미나를 겸한 송년 모임이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1년에 단 하루, 미리 날짜를 정해 금요일 방송 스케줄이 끝나는 대로 합류하여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1박 2일의 일정. 누가 날을 잡았는지, 탄핵 가결과 관련한 <특집 뉴스데스크> 편성으로 저녁 무렵 갑자기 지역 뉴스가 없어지는 바람에 더 일찍, 더 많은 선배들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남편이 약속이 잡혀 있다 했습니다. 매 순간 3살

아들과 남편의 일정, 그리고 나의 방송 스케줄을 확인해야 하는 ‘아이 엠 맘’으로서 아무리 머리를 써도 도저히 조정이 안 돼, 전 무리수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아들을 데리고 가보자!’ 1980년대였다면 본 적도, 들은 적도, 상상한 적도 없을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강릉, 삼척, 원주, 춘천에서 모인 13인의 선배 아나운서들, 그리고 최근 뭔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땐 마구 소리

를 지르는 것이 해법이라 착각하기 시작한 세 살배기까지 한자리에 모여 송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전하자 한결같이 걱정 말라고 따듯이 배려해주셨던 선배님들, 그리고 꼬마 게스트를 위한 특별 선물까지 준비해 준 후배님들!

덕분에 푸짐하게 배를 채운 식사시간과 강원 3사 아나운서들의 멋진 모습이 담긴 달력 및 깜짝 선물 증정식, 내년 한

해 힘이 되어줄 메모 한 마디 전달 등 준비된 순서들이 순조롭게 지나갔습니다. (밥을 코로 먹은 것 같았지만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해 식당을 잠시 탈출하는 상황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매우 순조로웠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숙소로 이동하여 잠든 아들을 옆방에 눕히고 다시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역 아나운서의 현주소, 제작·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교환, 각 사의 제작비 현황,

라디오 다큐멘터리 기획안, 아나운서의 고용 관련 논의, 지역사 통합건, 그리고 지역 방송사가 나아가야 할 길 등 매번 나오는 이야기라 조금은 무뎠지기도 했고, 변화가 이루어지긴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연봉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여자 아나운서가 연례 워크숍에 자녀를 동반하여 참석한 것도 이미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바로 12월 9일,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도 국민의 열망과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인 만큼, 오늘의 모임도 지역 언론사의 작은 결음에 분명 보탬이 되리라 믿어봅니다.

다시 영화 속 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샘은 “카라멜 마키아토, 뜨겁게요!” 하는 손님에게도, “제일 큰 바닐라 라떼요!” 하는 손님에게도 마찬가지로 “That's a wonderful choice!” 라고 외칩니다. 어떤 주문을 하든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응수해주는 샘. 어쩌면 그 말이 바로 모두가 가장 듣고 싶었던, 정답과도 같은 말 아니었을까요? 어떤 선택이든, 힘들었을 너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아니, 너의 선택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너 자체를 지지한다.

지역 방송사의 아나운서가 된 것, 멋진 선배님들과 한 가족이 된 것, 몸 고생, 마음고생, 워킹맘을 선택한 것, 철없는 아들을 철없이 연례 워크숍에 데려가는 것, 일정을 오늘로 잡은 것, 촛불을 밝히는 것, 국민이 표현하는 것, 국회가 선택한 것, 모두 “That's a wonderful choice!” 워킹맘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이엠 샘>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듬뿍 받은 하루, 바로 12월 9일이었습니다. 이상, ‘아이엠 맘’ 원주MBC 박지현 아나운서였습니다.

2004년 입사, 현재 <뉴스데스크 원주>를 맡고 있다.

지역 다문화가정의 이야기 <이웃의 탄생>, 시각장애인들의 도전담 <세상, 들어보다>, 감정노동자의 고충을 담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올바른 부모의 길을 제시하는 <부모자격증> 등 다수의 다큐멘터리 작품으로도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다.



강원 3사 MBC 아나운서들 (왼쪽 상단부터 춘천 정우성, 강원영동 민기원, 춘천 이승현, 강원영동 김서영, 강원영동 김현수, 강원영동 성소리, 원주 주용준, 필자 원주 박지현, 춘천 박수현, 춘천 이석용, 강원영동 차해리, 춘천 박윤미)



방 | 송 | 가 | 소 | 식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 언어문화 MOU 체결



청소년활동진흥원 신은경 이사장(중앙)과 함께한 ‘고마워요’ 캠페인 홍보대사로 왼쪽부터 조충현, 이지연, 정지원, 이상호 아나운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과 KBS 아나운서실이 ‘바르고 긍정적인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과 김관동 KBS 아나운서실장은 10월 24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서울 서대문구)에서 김성은, 유지철, 오유경, 윤인규, 김진희, 이상호, 김재홍, 엄지연, 김솔희, 이지연, 조충현, 정지원 아나운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그간 양 기관이 각기 추진해오던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과 ‘청소년 행복캠페인 고마워Yo(요)’가 범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행복캠페인 고마워Yo(요)’는 국내 외 다양한 연구·실험결과 인성함양과 행복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감사나눔’을 생활화 하자는 자기주도 실천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앱 ‘고마워Yo’를 설치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6년째 진행되고 있는 KBS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은 KBS의 아나운서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우리말의 의미와 바른 언어생활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하고 소통하는 언어문화 개선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날 ‘청소년 행복캠페인 고마워Yo(요)’ 홍보대사로 이상호, 조충현, 이지연, 정지원 아나운서가 위촉되었으며, 함께 펼쳐진 ‘아나운서 분야 청소년 진로체험의 날’에는 인창중학교 및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50여 명이 참석해 박노원 아나운서 등으로부터 바른 우리말 사용의 필요성, 아나운서 직업과 아나운서 준비과정 등에 대해 전해 들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수능이후 고3 청소년을 위한 희망콘서트, 아나운서 분야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등을 공동기획·운영하는 등 양 기관의 상생발전과 청소년의 인성함양 및 행복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완태 아나운서 제2부장 보직 맡아

리우올림픽에서 노련한 중계를 보여주었던 김완태 아나운서가 부장 보직을 맡아 아나운서 제2부장이자 후배 아나운서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일하고 있다.

아나운서들 연기한 <우리말 나들이> 60초 드라마 <X> 방송



MBC 아나운서들이 직접 참여해 연기도 하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언어순화를 주제로 제작한 60초 드라마 <X>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완태(사진 오른쪽) 아나운서가 주인공의 친구인 노안의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출연한 것을 비롯해 최대현, 양승은, 이정민, 서인 아나운서 등이 색다른 모습을 선보였다.

신입 아나운서들 방송에 본격 투입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민형, 엄주원, 김준상, 정다희, 안주희, 정슬기 아나운서

가을 개편을 맞아 신입 아나운서들이 방송에 본격 투입되었다. 김민형 아나운서가 <뉴스투데이>, 안주희 아나운서가 <경제뉴스>의 앵커로, 정슬기 아나운서는 <뉴스24>의 ‘스포츠다이얼’ 진행자로, 정다희 아나운서는 <생방송 오늘저녁>의 신생 코너 ‘오늘은 장날’의 MC로 활약 중이다. 김준상 아나운서는 <섹션TV 연예통신>의 새로운 리포터로 합류했고, 엄주원 아나운서는 새벽 5시 뉴스 앵커로 활동하고 있다.



남녀 신입사원 2명 내년 2월 발령



이인연 주시은

SBS 아나운서팀에 새로운 얼굴이 들어왔다. 공채 22기 이인연, 주시은 아나운서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쳐 내년 2월 1일 정식 발령이 난다.

<잘 먹고 잘사는 법...>에서 아나운서 특집

<잘 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에서 아나운서 특집으로 2016년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제3회 나눔특집 '집밥 나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번 특집에는 MC인 배우 김수로, 요리연구가 임지호 씨와 함께 최영주, 최영아, 이현경, 정미선, 유경미, 김환, 김주우, 조정식 등 8명의 아나운서가 함께해 나눔을 실천했다.

앵커 출신 박선영 <본격연예 한밤> MC로 발탁



2007년 입사, <8뉴스> 앵커로서 깔끔한 진행 능력을 선보였던 박선영 아나운서가 올 3월 23일에

끝난 <한밤의 TV 연예>를 잇는 새 연예정보 프로그램의 MC로 발탁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그맨 김구라와 함께 진행하는 <본격 연예 한밤>은 12월 6일 첫 방송부터 심층 취재 등 파격적인 접근으로 호평을 받았다.

김환 <정글의 법칙> 동티모르 편 출연



<정글의 법칙> 출연을 고대해 왔던 김환 아나운서(오른쪽에서 2번째)가 동티모르 편에 출연했다.

'시간을 잊어라'라는 주제로 이문식, 유인영, 권오중, 오창석, 강남, 황치열 등과 함께 12일간 촬영하며 체중이 8킬로그램이나 빠졌다는 치열한 생존기는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 중이다.

가을 개편으로 프로그램 진행자 이동

11월 28일 가을 개편으로 김윤주 아나운서가 라디오 조이4유에서 <찬양의 숲>(16시~18시)을 진행한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음악FM <뽕큐 포 더 뮤직>(2시~4시)은 출산휴가 후 복직한 이지민 아나운서가 맡게 되었다. 또 이강민 아나운서는 조이4유에서 <I love CCM>(14시~16시)을 진행한다.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0주년 콘서트



음악FM에서 아침 출근길을 활기차게 열어주고 있는 <그대와 여는 아침>(김용신 진행)이 10주년을 맞아

11월 25일, 홍대 베짜이 홀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박학기, 박승화, 바버레즈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했다.

김윤주 송정훈 <통해야 콘서트> 진행

CBS가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통해야 콘서트>를 10월 1일 경기도 군포문화예술재단에서 개최했으며, 김윤주, 송정훈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유영선 제6회 인천 고등학생 토론회 진행



민주주의에 대한 청소년들이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토론 문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제 6회 인천고등학생 토론회가 유영선 아나운서 진행으로 11월 6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려, 27일(일) 오후 4시 55분에 방송되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인천시내 고등학생 총 32명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8팀이 본선에 올라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 등의 주제로 열띤 찬반토론을 벌였다.

OBS 역사대기획 10부작 <경기천년> 방송

OBS는 1018년 고려 현종의 '경기'라는 행정단위 설치 이래 이어져온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10월 3일부터 역사 대기획 10부작 <경기천년>을 방송 중이다. 김용재, 김준호, 유영선, 이상희 아나운서 등이 녹음 제작에 참여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창사 60주년 기념 가을음악회



10월 11일 저녁 8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함께한 이번 음악회는 아름다운 하모니와 고운 선율이 감동을 선사해주었다.

제주극동방송 FM 내년 중반기에 본방

지난 8월 26일 극동방송은 28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주극동방송의 FM 방송 허가를 받았다. 제주극동방송의 FM 방송(104.7MHz)은 12월 시험방송을 거쳐 내년 중반기에 본 방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6 가을 방송인의 밤

2016 가을 '방송인의 밤' 모임이 11월 22일 극동방송 사옥에서 열렸다. 방송진행자들을 초청해 격려의 시간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유익한 강의와 나눔으로 꾸며져, 방송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가톨릭평화방송으로 사명과 CI 변경

11월 23일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에서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의 사명 변경 및 새 CI 선포식이 열렸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이사장 손희송 주교, 사장 안병철 신부 등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된 미사 후에는 김지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CI를 선포하고 새 사명을 알렸다.

한편 가톨릭평화방송은 11월 28일 대림 개편을 진행하고 시청자들에게 새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김현주 아나운서는 원로 사목자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TV <님 따라 한평생>(월, 화 10시 20분)을 진행하고, 이정민 아나운서는 가톨릭 라이프 솔루션을 제안하는 <뷰티풀 라이프 4U>(금 15시)의 진행을 맡았다. 김지현 아나운서는 가톨릭 관점의 문화콘텐츠 <책, 영화, 그리고 이야기>(목 9시)를 진행하고 신의식 아나운서는 현대극을 통해 성경 속 인물을 파헤치는 토크멘터리 쇼 <성경인물탐구 IF YOU>(화 21시)를 진행한다.

김슬에 복귀 객원 이나래 선발



김슬에 아나운서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대림 개편에 맞추어 복귀해 <FM 음악공감>(월~금 9시~11시)과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일 정오~13시), TV <교회는 지금>(토~일)에 투입되었다. 한편 객원으로 선발한 이나래 아나운서(사진)는 대림 개편에서 라디오 <코이노니아>(월~금 16시~17시)와 TV <가톨릭 뉴스>(월~금 10시, 15시, 22시)의 진행을 맡았다.

제16회 창작생활성가제 열려

'제16회 CPBC 창작생활성가제'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렸다. 작년에 이어 김지현, 이정민 아나운서의 공동 사회로 진행된 성가제는 본선 11개 팀뿐만 아니라, 뮤지컬 <알타보이즈> 특별 무대도 꾸며졌다.

<김도향의 명동연가> 11, 12월에 콘서트 개최

<김도향의 명동연가> 공개방송의 일환으로 '2016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토크 콘서트'가 11월 20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열렸다. 토크 콘서트 후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 대리 유영춘 주교 집전으로 미사가 봉헌되었다. 유익중, 남궁옥분 등 유명 7080 가수들의 음악으로 꾸민 이번 공연에 이어, 12월에는 성탄특집으로 애덕의 집에서 '성탄특집 희망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가을 개편으로 프로그램 진행자 이동

11월 28일 가을 개편으로 김윤주 아나운서가 라디오 조이4유에서 <찬양의 숲>(16시~18시)을 진행한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음악FM <뽕큐 포 더 뮤직>(2시~4시)은 출산휴가 후 복직한 이지민 아나운서가 맡게 되었다. 또 이강민 아나운서는 조이4유에서 <I love CCM>(14시~16시)을 진행한다.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0주년 콘서트



음악FM에서 아침 출근길을 활기차게 열어주고 있는 <그대와 여는 아침>(김용신 진행)이 10주년을 맞아

11월 25일, 홍대 베짜이 홀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박학기, 박승화, 바버레즈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했다.

김윤주 송정훈 <통해야 콘서트> 진행

CBS가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통해야 콘서트>를 10월 1일 경기도 군포문화예술재단에서 개최했으며, 김윤주, 송정훈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돌발 교통정보 SK T맵에 반영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사고나 공사 소식 등 돌발 교통정보가 12월 8일부터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에 반영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의 목소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목소리 검색을 많이 할수록 주소·목적지를 인식하는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가을 개편으로 새 단장 인기몰이 중

9월 26일 가을 개편으로 새롭게 단장한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월~금 7시)과 지상렬의 <브라보 브라보>(월~일 14시), 그리고 10월 24일 첫선을 보인 TV <정봉주의 품격시대>도 인기몰이 중이다.

<나선희, 김미화의 유쾌한 만남> 특집 콘서트



tbs FM 대표 프로그램 <나선희, 김미화의 유쾌한 만남>(월~금 14시~18시)이 상암 이전 후 첫 특집 콘서트를 연다. 12월 28일 저녁 7시 30분, tbs라디오 공개홀에서 '아듀 2016'이란 주제로 열리는 공개방송은 가수 김장훈, 적우, 정훈희, 김종서의 무대로 꾸며진다.



TV·라디오 동시 개편



9월 5일 치유와 존중을 주제로 TV·라디오 동시 개편을 실시했다. 장수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마음 여행>은 장르를 넘나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들을 평일 21시부터 두 시간동안 담아내고 있으며, 이효주 아나운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행복선원장 월호스님과 함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3>로 평일 14시부터 유익하고 행복한 두 시간을 선사하고 있다. 11월 1일자로 편성제작국에 발령받은 오승진 아나운서는 김명석 아나운서와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BBS TV뉴스(사진)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회 | 원 | 동 | 정

BTN불교TV 방송자문위원 위촉 <스토리 불교 뉴스> 진행



BTN라디오 <마음의 선물> 진행자 헤인스님과 함께

황량(전 KBS) 9월 28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10월 10일부터 시범 방송 후 11월 1일 공식 개국한 BTN(대표 구본일) 디지털 라디오 '울림'에서 <스토리 불교 뉴스>(토, 일 자정)를 진행 중이다.

최영섭 작곡 70주년 기념 음악회 사회



채영신(전 KBS)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 선생의 미수를 맞아 12월 10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작곡 70주년 기념 음악회 사회를 보았다.

다문화가정 돕기 한류 빅콘서트 진행



김현욱(전 KBS) 10월 14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이벤트 광장에서 열린 스포츠월드 창간 11주년 기념 다문화가정 돕기 한류 빅콘서트를 진행했다.

<방송, 말해줄까?> 앵커 부문 집필



김형기(전 BBS) 아나운서, 앵커, 기상캐스터, 리포터, DJ 등 5명의 젊은 방송인들이 예비 방송인을 위한 현실적 조언을 담은 책 <방송, 말해줄까?>(박복)를 출간했다.

공저자 중 한 명인 김형기 회원은 2009년 국회방송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YTN 이브닝 뉴스 앵커를 거쳐 2013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불교방송 아나운서로 근무 후 현재 MBC 보도국 라디오뉴스팀에서 프리랜서 앵커로 일하고 있다.

추수감사절 맞아 위진록 선배가 소연회 베풀어



왼쪽부터 송현식 회원과 손녀 제인, 그리고 이병훈, 정영호, 위진록 회원 내외

추수감사절 전 날인 11월 22일 토랜스에 있는 일식집 초막집에서 위진록 선배님 내외분 주최로 소연회가 열렸다. 오랜만에 송현식 회원과 손녀, 이병훈 전 미주한인방송협회회장 내외, 정영호 편집위원 내외 등 옛 남산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억을 회상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스마트폰 신주소록 제작 경과보고

아나운서클럽에서는 350여 회원 상호간의 소통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현실에 맞는 신개념의 스마트폰용 전자주소록 제작을 2017년부터는 회원 모두가 활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주소록 하면 그동안은 흔히 소형 책자 형식으로 제작, 소지해 왔으나 이번에는 개인의 간략한 인적사항을 사이버 공간에 수록, 스마트폰만 소지하면 국내외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전자주소록으로 클럽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회원만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운영 사무국에 먼저 등록한 후 인증을 받아야 하며 또 한국아나운서클럽 고유의 애플리케이션(app)을 제공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전직 아나운서들도 주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소록 제작을 위해 350여 명의 회원에게 반송 우표를 첨부한 회원 카드 검용 양케이트를 발송해 사진 등 자료를 제공 받은 바 있으나, 사진을 보내지 않았거나 미처 응답을 하지 않으신 분은 금년 내로 클럽 주소록 운영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5234-7472 김규홍 부회장)

알림

고맙습니다

12월 10일까지



발전기금 내주신분



이병열(전 KBS) 100만 원



성선경(전 DBS) 부부 10만 원



전진영(전 KBS) 30만 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종 10월 17일 KBS 퇴사

조의를 표합니다

조석영(전 MBC) 11월 6일 모친상

한상권(KBS) 11월 1일 부친상

김인숙(전 KBS) 10월 31일 본인상

임국희(전 MBC) 10월 26일 부군상

전진영(전 KBS) 9월 29일 부친상

축하합니다

이서진(FEBC울산)

12월 3일 연구원인 연인과 혼인

고故 김재영(전 KBS)

장남 두호 군 12월 3일 혼사

김현욱(전 KBS)

12월 2일 혼인

전우벽(전 KBS)

장남 홍구 군 11월 26일 혼사

신성원(KBS)

10월 20일 득녀

이선영(KBS)

9월 17일 득녀

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추모사

여성 권익 향상에 앞장선 김인숙 선배님을 기리며



“인체는 소우주와 같아요. 자신의 몸을 알면 우주를 아는 것이예요. 물론 우주도 인간도 미완이지만 말입니다. 우주도 우리 인간들처럼 어디론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아마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을 겁니다.” 오래전 읽었던 김채원 소설집 속의 글귀가 떠올랐다.

2014년 3월 15일자 클럽회보 초대석(제13호 3면)은 입사 50년 차이의 KBS 김보민 아나운서가 인터뷰했는데, 김인숙 대선배님께서 아나운서를 시작하신 1953년에 세상에 태어난 필자는 아나운서라는 그 끈 하나로 이렇게 조사를 쓰고 있다.

10년 남짓 아나운서 생활을 토대로 40년 넘게 여성 권익 향상과 세계청소년 교류를 목표로 하는 한국우먼스클럽 회장을 지내는 등 수많은 사회활동을 하시고, 휴전 협정 전에 입사해 방송을 한 관계로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아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영면하신 김인숙 회장님!

우아한 귀부인 모습의 KBS 초창기 아나운서분들과 함께 근자에도 클럽 모임에 참석하셨던 김인숙 회장님을 추모하면서 난 더 이상 슬프지 않다. 이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하숙생>의 작사가 김석야 선생(부군)을 만나서 또 다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에...

“늘 미소 띄우시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던 김인숙 대선배님!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 많이 격려해주세요. 먼 우주여행 부디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전 MBC) 사무총장



걸어갔던 새벽길 / 캔버스에 유화



작가 이정부

1968~1994년 KBS 아나운서, 뉴스 담당 부장, 뉴스, 쿼츠, 스포츠 중계 담당
1999~2005년 SBS골프 아나운서국장, 방송위원, 골프 전문 캐스터로 활동
2011년 수필춘추 통해 수필가로 등단
2014년 수필집 <방송 안녕하십니까> 출간, 현재 수필가, 서양화가, 조각가
작품활동 - 1967년 국전, 회화그룹 다양성 창립멤버, 작품전 3회(93, 95, 98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초대 대변인 역임

전·현직 아나운서 10여 명 한국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 참여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규홍 부회장, 가애란, 전옥수, 정홍숙, 황량, 채영신, 오유경, 김동건, 윤지영, 김솔희, 황인우, 한국JC특우회 진종시 중앙회장, 김범도, 조남인 집행위원장, 황우겸 고문 내외, 동아쓰시오그룹 강신호 회장

김동건(전 KBS) 고문을 비롯한 전·현직 아나운서 10여 명이 10월 29일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에서 개최된 2016년도 한국JC 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에 참여해, 한국JC 64년 역사의 산 증인인 황우겸 고문의 미수와 동아쓰시오그룹 강신호 회장의 구술을 축하하며 꽃다발을 증정했다.

김규홍(전 KBS) 부회장이 1,300여 명이 참석한 대형 행사의 총연출을 맡아 4시간 동안 진행된 우정의 밤 1부는 황수경(전 KBS) 회원, 2부는 오유경(KBS) 아나운서가 각각 사회를 보았으며, 정홍숙(전 MBC) 회원이 시를 암송해 큰 박수를 받았다.

Zoom-in 국내 첫 소셜 라이브 방송 [50+TV] 개국 특집방송 진행자 방담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 때 그 시절 열정과 숨씨 보여줬다

일산 킨텍스서 열린 센덱스2016 박람회 생중계, 클럽 회원 8명 재능기부 '돈 안 받고도, 기분 좋았다!'

11월 3일부터 5일, 80대를 바라보는 이성화 아나운서부터 40대 프리랜서 윤지영 아나운서까지 8명의 아나운서클럽 회원들이 현역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50+코리안이 출사한 50km협동조합이 주관하는 [50+TV] 개국 특집 <센덱스2016>을 진행해 찬사를 받았다. 교통이 불편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리는 국내 최초 소셜 라이브 방송을 장시간 진행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아나운서 클럽 일이나 동참하겠다'며 재능기부에 선뜻 응해준 회원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사흘간의 역사적인 방송을 끝내고, 이성화(전 TBC), 이세진(전 KBS), 황량(전 KBS), 이현우(전 MBC), 배유선(전 KBS), 황인우(전 KBS), 윤지영(전 SBS) 회원이 11월 말,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후일담을 나누었다. / 사회, 글 : 황인우 편집장

재능기부에 선뜻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감부터 나눠볼까요?

이성화 새로운 방송 체형하느라 모두 수고 많았어요. 난 첫 날 첫 번째 방송이었지만 남자 MC 중에 제일 젊은 든든한 짝이 있어 걱정 없이 임할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 나같이 나이든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것. "저 나이가 되어서도 활동을 하는구나. 소통할 수 있구나."라는 말을 들으니 기뻐했습니다.

김성길 전 50+코리안에서 스마트영상작가 교육을 받은지라 PD 할까 하다 줄지에 진행자 자리에 앉은 거예요. 20년 만에 친정에 돌아온 것 같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헤아릴 수 있어 편안하더라고요. 방송 나가고, '왜 아나운서 계속하지 않고 PD 했느냐. 아나운서가 더 잘 어울린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세진 하기 전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방송이라 겁이 났지만, 나도 윤지영이란 젊은 후배 덕분에 맘이 놓였지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늘 하던 것을 했기 때문에 금세 적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할 것을 충분히 했다 싶어요.

윤지영 저야말로 선배님들께 누가 될까봐 긴장됐어요. 그러다 '요즘 TV가 우울한 대신 SNS로 기쁨을 나누자' 생각하니, 모임 자체로 뭔가 들쭉들쭉 재미있었어요.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해 영광이었습니다.

이현우 '아나운서는 평생 아나운서'라고, '언제 할지 모르니 끝까지 건강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돈 안 받고도, 기분 좋았다!'라고 할까, 뿌듯했습니다.

배유선 정년퇴직 후 3년 만에 마이크 앞에 앉았던 건데요. SNS 방송이 뭔지도 모르고 한 방송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떨리지는 않았고,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기분 좋게 잘 마친 것 같아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 걸 감사히 생각합니다.

황량 아직까지 쓸 데가 있다니 좋더라고요. 제가 진행한 마지막 날은 기술적으로 안정돼 인터컴도 다 들리고 해서, 리포터로 활약한 분들을 비롯해 회당 70여 명에 달하는 스태프들의 노고와 열정을 더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인우 전 오프닝멘트 할 때 한 손이 떨려 열린 탁자 밑으로 감추었습니다. 다소 흥분이 됐으나 봐요. 저도 50+코리안에서 강의해보아서 알지만,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은퇴자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국내 최초의 시도인 만큼 일화도 많았지요?

윤지영 후시나 선배님들이 새로운 방송 형식에 부담을 느끼실까 봐, 제가 부끄럽지만 이런 느낌이라는 것만 참고하시라고, 저 혼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카톡 창에 본보기로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우였습니다. 어찌나 매끄럽게 진행하시는지 감탄했고요. 방송 시작 4시간 전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배려해주는 진정한 아나운서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황인우 기획 회의 때 '아나운서가 별로 할 일이 없다. 단독 MC로 가자'는 말도 나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겸 2MC 체제로 굳힌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1MC였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이성화 진행 2MC 진행의 장점을 알았다니까요. 첫날은 전 시판 리포팅이 전부 생방송이었는데, 와이파이 중계가 10초 정도 전송 시차가 생기는데다 현장 오디오도 들리지 않아 눈치껏 브리핑멘트를 하곤 했습니다.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해 답답했지만, 파트너가 있으니 전혀 부담이 없고 즐거웠어요. 나날이 개선이 돼 마지막 날 방송은 무리 없었지요?

황인우 시스템이 안정된 마지막 날 방송에선 즉석 리포팅도 있었습니다. 관람객을 미리 대기시켜 놓을 것이니 현장을 스케치하며 인터뷰도 하라는 건데, 막상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

보니 상황이 다른 거예요. 마침 한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연스러웠다고 해 다행이었어요.

김성길 연출자 말이, 스태프들이 서로 우왕좌왕 할 때 '아나운서에게 넘기지 못했으면 어떡했을까' 싶어 아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날 대본을 받고 보니 글자가 너무 작아 잘 안 보여, 어쩔 수 없이 돋보기 끼고 진행했어요.

배유선 전 둘째 날인데도 역할 분담도 잘 안 되고, 애드리브와 임기응변이 많이 필요할 거란 예상대로였지요. 2부는 대본도 없이 업체 대표들 즉석 출연시킴 즉흥적으로 진행했더니깐요. 담당인 김현 PD가 '아나운서들 아니었으면 방송



11월 3일 첫 방송을 진행한 김성길(전 KBS) 이성화(전 TBC) 회원

못했을 것'이라 말했을 정도였어요.

황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능력 아닌가요? 방송 보니 전성기 때처럼 빛나는 진행이었습니다. 저는 집이 목동이라 일산 킨텍스까지 왕복 4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방송하러 일찍 일어나 나오느라 아침도 못 먹고는 점심 때 잠깐 쉬며 김밥 한 줄 먹은 게 꿀맛 같았어요. 예전 야구 중계하던 게 떠오르더군요.

이현우 미리 녹화하려 한 코너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생방송 출연으로 바뀌는 바람에 반가운 만남도 있었지요. 예전 게스트였던 여의사 유박영 씨를 20여 년 만에 웰에이징센터 원장으로 다시 만나 대담하는 기쁨도 맛보았어요.

시니어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보내는 50+TV 방송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아나운서클럽에도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김성길 개국방송으로 너무 큰 이벤트를 벌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제작을 대행하고 컨셉트를 잘 잡는다면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희망적입니다.

배유선 체계화되고 업무 분담이 확실히 돼서 시니어의 관심사를 고루 다루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방송으로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현우 계속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접근성을 높인다면 시니어들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아나운서클럽도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나운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황량 3명의 일본 NHK PD가 쓴 <노후 파산>이란 책을 보면, 65세 이후에 필요한 건 '건강, 재정, 대인관계' 그리고 일거리"라고 했어요. 새롭게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취미도 살리며 돈을 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이성화 내 말을 마이크 앞에서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펼치고, 스마트폰으로 반복해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거예요. 시니어에게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내용을 꾸준히 담은, 기둥이 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어요.

이세진 예를 들어 적십자바자회 등 많은 행사, 경동시장 등 특성화된 재래시장 등을 다루며 홍보한다면 수익 창출도 가

능해지지 않을까요?

윤지영 주제도 좋고 시니어에게 필요한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선배님들의 프로필에 적힌 프로그램의 제목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어루만지면서 읽었는지 모릅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했던 프로그램 제목들보다 더 익숙하고 신명했습니다. 올해 뜻밖의 추억과 함께하는 기쁨 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황인우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베테랑 진행자들 덕분에 방송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로 '저희 아나운서클럽에서 국내 최초 소셜 라이브 방송 진행'이라는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11월 3일 : 전 KBS PD 김성길 연출, 박기영 구성
1부 (11:00 ~ 13:00) 김성길(전 KBS) · 이성화(전 TBC)
2부 (14:00 ~ 16:00) 이세진(전 KBS) · 윤지영(전 SBS)
- 11월 4일 : 전 KBS PD 김현 연출, 황재선 구성
1, 2부 이현우(전 MBC) · 배유선(전 KBS)
- 11월 5일 : 전 KBS PD 정성일 연출, 김영주 구성
1, 2부 황량(전 KBS) · 황인우(전 KBS)

센덱스2016 진행자 약력



김성길

1955년생. 1985~2013년 KBS 아나운서, 편성, 스포츠 PD, 도쿄대 사회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 인천 AG주관방송사(IHB) 대표 역임. <방송진행소프트>(1998, 한울), <스포츠콘텐츠의 이해>(2012, 한울) 출간. 현재 KBSN 전문위원, 한국체대 외래교수



이성화

1939년생. 1959(부산MBC)-1962(MBC)-1964(TBC) 아나운서로1975년까지 TV <퀴즈 올림픽>, 라디오 <밤을 잊은 그대에게>, <가로수를 누비며> 등 진행, KTV 라디오 <다시 보는 문화영화> 영상해설, 현재 관악FM <쾌지나청춘> 진행



이세진

1944년생. 1967~2002년 KBS 아나운서로 야구, 육상, 체조 중계, KBS영월 방송국장, EBS 이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역임. <3인 아나운서 이야기>(2015년 이계진과 공저, 하루헌) 출간. 현재 (사)한국차인연합회 고문



윤지영

1973년생. 1996~2010년 SBS 아나운서로 <좋은 아침>, <생방송투데이>진행. 2013년 프리랜서 선언 후 MBC <TV특강>, EBS <인문학콘서트>, jibc <생생퀴즈쇼 장원급제> 등 MC로 활동 중. 중앙대 신학과 대학원 박사 수료



이현우

1950년생. 1977~2008년 MBC 아나운서국장으로서 정년퇴직. TV <인기가요 페어리드>, <뉴스센터>, <스포츠뉴스>, 라디오 <푸른 신호등> 등 진행. 현재 복지TV <복지뉴스> 앵커.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배유선

1955년생. 1978(CBS)~2013년 KBS 아나운서로 TV <뉴스파노라마>, <가정요리>, <여성백과>, KBS 대전FM <음악이 있는 곳에>, <오후의 음악실> 등 진행, 시각장애인 녹음 봉사 활동. 대전충남아나운서협회장 역임



황량

1949년생. 1974~2007년 KBS 아나운서로 야구, 육상, 레슬링 중계캐스터,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황량입니다> 진행. 편성실 방송기획차장, 심의위원, KBS군산 방송국장 역임. 현재 BTN 자문위원으로 <스토리 불교뉴스> 진행



황인우

1958년생. 1979~1993년 KBS 아나운서로 <누가누가 잘하나>, <뉴스파노라마>, <이산가족찾기> 등 진행. SBS방송아카데미 전임교수,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초빙교수,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외래강사 역임. 현재 한국어아나운서클럽회보 편집장



우리말 다들기 기고 3주년 특집
이규향의 발음이야기17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아나운서의 미학과 서예

— 한국은 방송 장비의 선진국, 방송언어의 후진국

언어는 인류 최고의 문화재, 방송언어가 거칠어지면 국민 심성도 거칠어진다

이른바 국민 MC들의 애드리브보다 독보적인 역대 아나운서들을 벤치마킹 해 계승해야



이규향

- 고려대 국문학과 졸업
- KBS 아나운서 실장
- 한국어문화 한자재민취득자
- 음성언어교육 강사
- 문교부 국어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예를 중국에서는 「서법」, 일본에서는 「서도」라 하여 세 나라는 「예술」과 「법」과 「도」를 한 개념으로 보았다. 서예의 오체五體에 방송의 장르를 대입해 보았다. 정자正字로 쓴 해서楷書는 뉴스·내레이션·시낭송, 반흘림체인 행서行書는 DJ, 획이 굵은 예서隸書와 도장새김체인 전서篆書는 오프닝 멘트, 반흘림체와 흘림체가 섞인 행초서行草書는 스포츠캐스터와 MC 멘트로 보았다. 정통파 서예인은 오체를 섭렵한 후 한 장르에 전념하는 바, 왕희지는 행서의 서성書聖이요 추사 김정희는 예서의 대가였다. 서예계의 혁명가였던 추사는 초서체가 법도에 어긋나기 쉽다 하여 초서 작품을 한 점도 남기지 않았다. 올바른 방송인 역시 모든 장르의 방송을 할 수 있으나, 한 분야의 전문인일 경우여야 한다.

어느 국어학자가 방송언어가 훼손된 이유를 물었다. “『방송 원고에 구애받지 않는 소위 국민 MC들의 애드리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 멘트를 알아들을 수 없어 자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필자는 이렇게 응대하였다.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해방 이후 초등학교에서의 발음 교육 부재를 수방관한 국어학자들의 책임과 실용국어 관리의 총본산인 국립국어원의 음성언어의 몰이해로 인한 직무유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성언어의 산실인 KBS한국어연구회가 창립정신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발음 교육 중심의 Phonics 교육을 받고 자란 미국의 어린이들이 토대가 되어, 미국의 표준어는 언어학적으로는 중서부 말이지만 통념상 Television English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발음에 대한 타인의 지적에 ‘나의 발음은 방송언어와 같다’고 답하는 미국인들의 언어 상식이 부럽습니다. 프랑스는 국립극장에서 공연하는 배우들의 ‘대사 발음 적기’가 방학숙제일 때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프라노 사메지마 유미코는 음악성에 앞서 일본어를 가장 우아하게 표현하는 성악가로 더 유명합니다. 일본인들의 국어 사랑 관심도의 한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방송 제작자와 아나운서들조차도 제도권에서 발음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표준어의 기본 기능인 ‘통용력’ 외의 국민정신을 지배하는 ‘준법과 통일의 기능’이란 철학을 어찌 이해하며 절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의식주의 욕망이 채워지면 신분상승의 욕구가 발동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방송출연입니다. 아나운서의 뉴스 결방缺放을 엔지니어가 막아준 상징적인 사고事故는 방송국 안팎에서 방송을 열망하는 「방송 마키아벨리스트」들이 많다는 산증거로 아나운서는 이런저런 누명으로 방송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였습니다. KBS 아나운서실은 「국」단위에서 「부」단위로 추락했다 다시 「국」으로 부활(?)하는 등 사내의 질시로 인한 수난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방송 참여가 축소되었습니다. 철없는 일부 아나운서들이 아나테이너로 변신하니 이제는 아나운서의 본분을 잃었다고 비난합니다.

쉬운 방송이야 없겠지만 우선 TV보다는 라디오가 어렵습니다. 아나운서의 기법상 스트레이트 뉴스와 중계방송 그리고 시낭송이 가장 어려운데, 이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앵커의 뉴스 멘트와

MC의 멘트가 쉬운 편인데, 모순되게도 명성은 이 분야에서 얻게 되어, 과대평가 받고 있지요. NHK처럼 출연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선정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화가의 진면목은 데생력과 크로키로 알 수 있듯이, 서예에서는 「永」의 필법으로 판별됩니다. 아나운서의 실기시험이 진부한(?) 「스트레이트 뉴스 멘트」로 출제되는 것은 21개의 다양한 모음의 소릿값과 속도감 있는 아나운싱에서 쉽게 방송 수준의 우열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읽기」는 「말하기/adlib」를 위한 그림의 전 단계인 데생력과 같습니다.”

1980년대 초 아나운서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큰 사건이 벌어졌다. 아나운서 최후의 보루였던 라디오 정오뉴스(25분)를 당시 TV 9시 뉴스 명앵커였던 최모 씨가 갑자기 담당하게 되었다. 10분 스트레이트 뉴스는 5분 뉴스의 두 배 이상 힘들다는 아나운싱의 메카니즘을 아나운서 이외의 어느 방송인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역대 최고의 뉴스캐스터는 단거리(10분 이하) 뉴스에 장기범 아나운서, 장거리(10분 이상) 뉴스에는 전영우, 김승한 아나운서이다. 최모 앵커는 6일 만에 하차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MC와 DJ의 출신은 ①검증받은 아나운서 ②간접 검증을 받은 가수·탤런트·코미디언 ③출신 미상의 검증 안 된 이른바 국민 MC 등이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뀐 후부터 국민 MC란 용어가 유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MC의 방송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거의 모든 국민 MC의 담당 프로그램은 구성상 이미 시청률을 확보해 놓은 경우가 많았다. 필자의 경우 이른바 국민 MC들의 다른 장르의 방송을 들어본 적이 없다.

현 방송인들의 끼는 재기才氣의 「끼」보다는 광기狂氣의 「끼」가 많다.

정통 방송의 틀이 깨진 시기는 '80년 초 신근부세력의 집권 시절, 우민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TV에 묶어두기 위해 컬러 TV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무렵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소불위의 막말 외부 진행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주연배우 같은 미남 고광수 아나운서가 <전국노래자랑> 사회를 맡게 되어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고광수 아나운서는, 다른 프로인 귀순간첩과의 인터뷰에서 쓴 고급 Joke인 「후기인상파」 같다는 표현 때문에 어처구니없게도 노래자랑에서 하차하고 말았다. 이처럼 아나운서는 외부 방송인과 역할별 대우를 받았다.

이 무렵 외부 진행자에 대한 불만으로 시청자상담실에는 국어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쳐 아이로니컬하게도 그 방패막이로 탄생된 조직이 KBS한국어연구회이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아나운서 시험의 공정성과 철저함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심사위원이 13명이나 되었는데, 코믹하게도 예비군 중대장도 끼게 되는 기이한 일도 있었다. 아나운서 시험 심사위원으로 기자, PD가 들어오게 된 동기이다.

몇 년 전 KBS <낭독의 발견>은 성격상 낭독은 아나운서의 본령임에도 아나운서가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Presenter 역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왜 아나운서가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KBS 남산 시절, 한가한 오후 낮 한때 아나운서실의 고급 잡담. “『아나운서의 음색은 금속성과 목성木性으로 대별된다』 외부 인사의 진행을 보면서 「저 MC는 지나가는 아무 대학생이 말아도 되겠다」 「계절에 어울리는 악기. 봄에는 플루트, 여름은 트럼펫, 가을에는 바이올린, 겨울은 피아노」 「코니 프란시스의 노을빛 음색」 「나나 무스쿠리의 음색은 진주색」 「팻분의 솜사탕 같은 목소리」 「짐 리브스의 벨벳 보이스」 「노래하는 목소리」가 좋은 가수의 「말소리」는 반드시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소리」가 좋은 아나운서의 「노랫소리」는 항상 좋다.” 이런 수다를 듣다 녹음을 했다. 미학자 연사와 대담 중 「테너의 음색은 진홍색(Crimson)입니다」라는 명언을 들은 후부터 나는 방송 철학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었다. 성경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람의 성대는 신이 내려주신 최고의 악기이다. 아나운서는 우리말을 연주(recital)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까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소프라노 조수미의 찬란한 음색처럼 잘생긴 미남미녀를 볼 수 없었다. KBS 공채 탤런트 출신의 최불암은 방송언어 교육을 이수한 분으로 「차마고도」에서 모방할 수 없는 내레이션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 전 국민 MC 황인용 아나운서와 현 국민 MC 이금희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은 개성미가 넘쳐흐르는 음악을 듣는 듯한 명품 방송이다.

국민 모두는 방송의 출연자가 될 수 있으나 진행자는 될 수 없다. 진행자의 조건은 우선 혐오감을 주지 않고, 모방할 수 없고, 반하게 하는 경지의 재능과 미감 또는 호감을 주는 아나운싱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예체능의 3단계의 황금률은 ①수수-기본을 철저히 지킨다(방송인은 표준발음법 7장) 그러나 자기만의 개성미를 찾을 경우 ②파괴-깨뜨리는 듯 ③리離-벗어날 때이다. 「땃떨어지다」는 파격의 미이다. 언어의 규범을 어기는 것이 마치 앞서가는 방송 풍토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일부 문외한들에게는 이런 엄정한 규범이 족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대체로 비뚤어진 우리말을 걱정하는 분들은 자신의 국어 지식에 어긋나는 것을 나무라는 수준이다.

후배들은 역대 아나운서 가운데 장기범, 전영우, 강영숙, 임국희 아나운서의 발라드풍의 말씨, 임택근, 이광재 아나운서는 행진곡풍의 언어문화재를 창조하였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고 계승해야 한다. 언어는 인류 최초·최고의 문화재로 방송언어가 거칠어지면 국민의 심성도 거칠어지고, 품위가 있으면 심성의 품격도 높아질 것이다.

필자의 은사로 일석-石 이희승 선생과 함께 당대 국어학계의 두 큰 어른이셨던 심악心岳 이승령 선생은 오늘날과 언어의 혼돈 시대를 예견하신 듯, 만날 때마다 이 나라의 말은 아나운서들이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아나운서 시대가 지나갔다고 하는데, 금년 SBS 아나운서 시험에 4000여 명이 응시, 2명이 합격. 세계 어느 직장, 어느 직종의 경쟁률이 이와 같겠는가. 이런 고급 인력들이 방송국에서 사장되고 있다. 바이올린은 연주자에 따라 깡깡이(바이올린의 속칭)도 된다. 옥석이 가려지지 않는 한국의 방송 풍토에서 언제쯤 그레샴의 법칙은 사라질 것인가.